

# 대덕 벤처, 200억대 매출 4개사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지난해 '경영 성적표'가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4일 대덕밸리 업계에 따르면 오디티, 아이디스, 빛과전자, 세림정보기술, 애니솔루션, 해빛정보 등 6개사가 100억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밸리 리딩 벤처기업으로 손꼽히는 오디티와 아이디스가 각각 600억원, 4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을 토했으며 애니솔루션과 해빛정보가 '100억원 매출기업군'에 새롭게 합류하는 등 질적인 면에서 알찬 성장을 보였다.

대덕밸리 벤처기업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기업은 LCD 전문 벤처기업 오디티(대표 이 일). 지난 2002년 340억의 매출을 올린 오디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LCD화면의 컬러화, LCD모듈 제품의 고급화 및 고가화에 따른 교체수요의 급격한 확대로 무려 2배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세계 DVR 3대 메이저인 아이디스(대표 김영달)도 명성에 걸 맞는 성적표를 내놓았다. 아이디스는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DVR' 단일품목으로 지난해 409억원의 매출과 순이익 124억원을 올리는 등 '알짜기업'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아이디스에 이어 지난해 11월 코스닥 등록에 성공한 빛과전자(대표 김홍만)는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 2002년 167억원에 이어 2003년에는 256억원의 매출을 올려 '200억대 매출기업'에 등극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광통신 시장 최대불황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어서 더 큰 의미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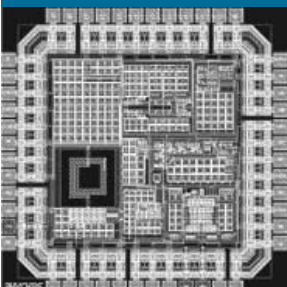
비코스닥 기업인 세림정보기술과 애니솔루션, 해빛정보 등 신생기업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매년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세림정보기술(대표 이병철)은 어김없이 지난해에도 210억원의 매출을 올려 빛과전자와 함께 '200억원대 매출기업' 대열에 합류했다.

또한 한국통신 사내벤처기업인 애니솔루션(대표 장영복)과 해빛정보(대표 박병선)도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대 매출을 기록, 나란히 '100억원대 매출기업'에 올랐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임채환 고문은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최악의 해를 보낸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낯다른 경영전략과 마케팅을 통해 일궈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고속성장을 할 수 있는 시장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제품 신기술

## '파이칩스' L1 L2 대역 동시 수신 IC 개발



대덕밸리 벤처기업 파이칩스(대표 고진호)는 위치추적시스템(GPS)에 활용되는 L1, L2 대역의 신호를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IC칩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GPS용 수신 IC칩은 위치추적 범위가 다소 넓은 L1대역만을 수신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출시됐다. 반면에 L1대역보다 위치추적이 정밀한 L2 대역은 미국이 군사용으로 활용해와 민수용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GPS의 위치추적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L2 대역을 민간에 공개하면서 L1대역과 L2대역을 동시에 수신할 수 있는 IC칩 개발수요가 요구돼 왔다. 파이칩스가 L1, L2 대역을 모두 수신할 수 있는 IC 칩을 개발함에 따라 위치추적이 보다 정밀해지고 건물 내 수신감도를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또한 단일 IC칩에 두 대역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 가격과 전력소모를 최소화 하는 등 GPS 단말기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파이칩스는 지난 2002년 9월 설립된 반도체 칩 개발 및 설계용역 전문 벤처기업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신기술창업지원단에 위치하고 있다.